침선기법을 이용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정현숙 · 박순천

조선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A Study on Fashion Illustration Applied Techniques

Hyun-Suk Jung and Soon-Chun Park

Dept. of Fashion Design,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 In the modern Society, the human's way of thinking as well as the new cultural creation has been changing by bringing on a change rapidly. The moderns are demanding humanity and the new cultural creation through the exchange between the old things and new things by setting material before everything else. The latest trends of today had an effect on the fashion Illustration, a new art category, which gives a new image. This report of research has a purpose which expresses Korean images by connecting the Korean traditional style to the modern fashion. And we are concerned about the national culture and tradition with the international stream. For this reason I studied these for the purpose of expanding expression area of sewing techniques by applying to fashion Illustration expressing handicraft techniques by natural beauty improving the modern and traditional images, updating, and succeeding to tradition. As the way of studying and contents, I referred to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s literatures, these, publications, magazines, or the internet surfing. Firstly, as the theoretical study, I studied a conception and history of the fashion Illustration. I studi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sewing techniques through the histories, tools, and techniqu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sewing handicraft is studied through the colors, patterns, materials and sorts. I also indicated the various works by the domestic designers.

Key words: Fashion Illustration, Traditional handicraft techniques, Traditional Fabric

1. 서 론

오늘날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더불어 인간의 의식구조도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예술분야의 한 장르로 패션이 미지를 전달하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의복을 기록하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제작 설명도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예술성을 전달하고 창출하는 표현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양한 소재의 개발과 기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정확한 의복제작을 위한 실체의 재현 즉, 복식의 디자인이나 스타일을 사실적인 아름다움으로 추구하는 조형화 작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대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그 사회의 문화적 현상 전체에 적용되는 예술의 총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형식과 내용 또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디자인의 조형성을 독자적인 방법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동시에 창의적인 예술성을 내포하여야 하며 기

능적 역할 이외에도 의상의 느낌을 표현하거나 내재되어 있는 패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매우 다양한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판화, 동양화, 콜라주, 사진합성기법, CAD, 수제지기법 등의 다양한 기법들과 접목되면서 그 표현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의 전통문화의 이미지를 현대적인 패션 디자인에 침선의 수 공예적 기법으로 응용하여 패션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작품에 표현된 소재는 천연염색한 오방색계열의 명주와 전통공예에 사용되었던 소재들로 접목을 시도하여 새로운 패션이미지 전달을 위하여 전통적인 감각을 살릴 수 있는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계승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문헌조사를 통해서 패션일러스트레이션과 침선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작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이론적 배경은 전통공예의 미적 특징을 침선기법을 이용하여, 기계적 표현이 아닌 수공예적인 기법으로 자연주의를 선호하는 현대의 감각에 맞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침선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생활 속에서 생겨나고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간의 미의식을 실용화시키면서 그 시대의 정치체제, 경제, 사회, 예술양식, 종교, 관념 등을 반영하여 인간의 생활감정에 기여한 우리문화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

Corresponding author; Soon-Chun Park
Tel. +82-62-230-7717, Fax. +82-62-232-5756
E-mail: scp122@yahoo.co.kr

는 요소 중 하나이다. 현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구호와 함께 전통한복, 조각보 등의 전통공예, 천연염색 등 전통의 이미지를 갖는 각 분야에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디자인의 특징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역할과 개성 있는 표현으로 창의적인 예술성을 내포해야 하는 현대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전통공예의 침선기법을 응용하였다. 또한 자연주의적인 전통의 미적 감정을 현대에 접목시키고 현대의 이미지가 표현된 새로운 전통의 창조적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새로운 전통의 창조적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작품을 총 7점을 제작하여 전통과 현대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이론적 고찰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란 패션과 일러스트레이션의 합성어로서 패션스타일을 해석하여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이다(이주현, 1999). 패션과 일러스트레이션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패션 이미지를 시각화하거나 패션 정보를 전달시키기 위한 것으로 색채와 형태에 의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다(박순천, 1996). 사전개념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의복 제작을 위해 한 구상을 스케치(Sketch, 1977)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옷을 그린다의 의미보다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패션의 흐름과 그에 따른 대중의 반응까지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하며 독창성 있는 풍부한 표현을 위하여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대상이 되는 의상의 기술적 요소를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인체 드로잉, 오브제의 자유로운 사용과 조형감각 등 예술적 측면을 겸비해야 한다.

패션산업이 발전하고 다양화함에 따라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인간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예술의 개념으로 하나의 사회 예술영역의 한 부분을 이루면서 패션의 메시지, 정보 전달을 위한 시각 환경을 만들어 내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시대성과 시사성을 반영한다. 활용은 정보 전달의 기능을 패션산업의 발달과 관련 분야들이 세분화, 전문화가 되면서 용도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실용적인 측면과 예술성 자체를 강조하는 예술적인 측면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권성재, 1976).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실제적 표현방법에 있어서 작가의 주제의식과 표현대상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표현기법이라 할 수 있겠다. 적절한 재료와 표현기법의 선택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2.2. 침선의 이론적 고찰

인류가 최초로 의복을 몸에 걸치기 시작하였을 시기에는 자연 상태에서 짐승의 가죽이나 털, 식물의 껍질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바느질을 해 입었을 것이다. 그러다 점차 꿰매는 도구인 바늘과 실을 갖추게 되면서 바느질법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볼 때 침선은 복식과 그 기원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문명의 발달에 따라 복식에 필요한 장신구나 생활용품, 장식품등에 까지 여러 분야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선조 후기의 고서인 『조침문(弔針文)』에서는 “...누비며, 호며, 감치며, 박으며, 궁 그릴 때에 겹실을 꿰었으니 붕미를 두르는 땀땀이 떠 갈 적에 수미가 상용하고 솔솔이 붙어 내매 조화가 무궁하다.”(조효순, 1988)라는 구절이 있다. 이렇듯 침선은 일상 생활과 함께 하는 것으로 인간의 미의식을 실용화시켜 왔다. 바느질이 여인의 일상생활이었던 만큼 바느질에 필요한 규중칠우(閨中七友)에 얹힌 글, 일화, 민담과 금기, 야화, 상징 등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부러진 하찮은 바늘을 보고 애통하여 지었다는 조침문이나, 규중칠우라 하여 바늘, 실, 자, 가위, 다리미, 골무 등을 의인화(擬人化)해 서로의 재주를 찬양하는 소설 규중칠우쟁론기(閨中七友爭論記)등에서도 바느질 도구에 대한 여인들의 염원을 느낄 수 있다(Fig. 1, 2).

2.3. 침선공예의 이론적 고찰

한국 문화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전통적인 색은 단순히 색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철학사상과 결합하여 나타난다(김영자, 1992). 음양오행이라는 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색상에 있어서는 적(赤), 청(靑), 황(黃), 백(白), 흑(黑)을 오행의 각 기운과 직결된 다섯 가지 기본색이라 하여 오색(五色) 또는 오채(五彩)라 불렀다(강운숙, 1993).

침선공예에 나타난 색채 역시 우리의 전통적인 색채관인 음양오행설에 근거하여 오방색(Fig. 3)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선시대에는 염료나 옷감이 귀하었으므로 대개 의복 등을 짓고 남은 자투리 천을 모았다가 사용했을 것으로 본다.

문양은 개인의 주관적인 사상과 정서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양이 존재했던 시대 사람들의 집단적인 가치와 내면적 세계를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허균, 1995). 언어와 문자 또한 마찬가지로 그 민족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 고유한 형태를 지니게 되며, 새로운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지라도 나름대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에 이를 전통문양 Fig. 4이라 할 수 있다.

침선공예의 소재와 염료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신체는 자체적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연치료 방식 중 의류나 색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천연염색이다. 신약적이며 주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약재들은 민간 치료요법으로 자연염색에 활용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천연염색에 쓰이는 염재에는 약재가 많다(이승철, 2001).

천연염색에 사용하는 소재는 주로 천연섬유를 대상으로 하며 식물성 천연섬유에는 면, 마, 모시, 삼베 등이 있으며, 동물성 소재에는 누에고치에서 얻은 비단과 양털에서 얻은 양모 등이 있다. 천연염색 염료는 크게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염료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온 염료는 대부분 식물성이며 우리 전통의 색 중에서 음양오행에서 말하는 오방색 황, 청, 적, 백, 흑색을 말한다.

Fig. 1. 바느질 침선장, p.9.

Fig. 2. 바느질상자 국립미술박물관

Fig. 3. 오방장주머니 강자영 한복, 1991

Fig. 4. 네모비단결상보 초전섬유박물관

Fig. 5. 귀주머니 이화여대박물관

Fig. 6. 궁중보자기 사전자수박물관

Fig. 7. 모시조각보 사전자수박물관

Fig. 8. 여의주무늬문보 사전자수박물관

Fig. 9. 세모조각보 국립중앙박물관

Fig. 10. 수저집 이화여대박물관

Fig. 11. 누비보자기 사전자수박물관

Fig. 12. 담배쌈지 이화여대박물관

침선공예에서 보자기는 한자어로 ‘襟’로 보자기로 명칭 되고 있는데, 사전에 “물건을 싸는 작은 보로 보자 또는 보로 불리 운다.”(이미석, 2002). 조각보자기는 사용하다 남은 색색의 천 조각들을 이어서 만든 조각보 Fig. 5, 6로서 실의 색상은 바탕 천과는 대조되는 색으로 하여 장식의 효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머니는 작은 물건을 소지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용도와 장식을 겸한 소품 Fig. 3이다. 우리 전통의사에는 주머니가 없 었으므로 모든 소지품은 주머니에 의존할 수 밖 에 없었고, 실 용적인 면에서 따로 만들어 차게 된 것이 장식화 되어 실용적 인 면과 장식적인 면을 충분히 갖춘 장신구로서 발전하게 되었다(유희경, 1975).

침선기법 중에서 흠질은 조각을 이어붙일 때 술기부분이 풀 리지 않게 사용하는 기법이며, 감침질은 바늘땀이 어긋하게 나 타나서 장식효과를 나타낸다. 시침질은 두장의 천을 밀리지 않 도록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다. 박음질은 바늘땀을 뒤로 되돌아 뜨는 바느질 방법으로 재봉틀과 같은 기법이다. 공 그르기는 단을 정리할 때나 창구멍을 막을 때 주로 사용하며 실 이 겹으로 나오지 않게 속으로 떠서 꿰매는 바느질 방법이다. 상침질은 장식을 겸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두땀 상침과 세땀상침이 있다. 사뜨기는 장식을 겸한 바느질로 양끝

이 마무리 된 것을 합칠 때 주로 사용한다. 흘솔은 꺾음술로 겹보의 겹을 이을 때 쓰는 술기처리 기법이다. 찔솔은 술기가 얇고 튼튼한 것으로 조각천을 이을 때 주로 사용한다.

누비는 옷감 사이에 둔 솜이 밀리는 것과 솜의 떨어짐을 막 기 위해 일정간격을 두고 누비는 기법이다.

3. 현대복식의 작품사례

현대복식은 현대인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한다(Toffler, 1991). 시대에 복식은 많은 사람들의 창조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개성을 표현케 하는 이상적인 매체로서 특 징적인 스타일은 개성을 요약해주며 개인만이 가지는 예술적인 욕구까지도 해결해 준다. 본 절에서는 전통적인 조형미의 특징 들을 현대복식에 접목시켜 표현하고 있는 국내의 몇몇 디자이 너의 작품을 통해 전통공예의 형태, 색상, 소재, 기법으로 나누 어 분류하였다.

3.1. 형태의 응용

전통공예의 네모조각보 형태를 응용하여 Fig. 13(좌)은 전통 자수, 색동, 아플리케, 손뜨개 등 다양한 디테일에 여러 가지

Fig. 13. 설윤희, 02'/03' F/W Seoul Collection (좌) 1995-1996 A/W Collection(우)

Fig. 14. 이상봉 04' S/S Seoul Collection

Fig. 15. 최복호 1998 S/S대구 Collection

Fig. 16. 최복호, 02', 00', 1997 S/S 대구 Collection

Fig. 17. 설윤희 02'/03' F/W Seoul Collection

Fig. 18. 이상봉 05' S/S Seoul Collection

오브제를 혼합하여 양단의 패치워크와 자수의 믹스매치로 로맨틱하고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다. Fig. 13(우)은 세모조각보의 형태를 응용한 디자인으로 원피스 스타일로 다양한 색상을 패치시켜 표현하였다.

Fig. 14(좌)는 주머니 형태를 포켓에 장식하고 과장된 칼라의 테일러드 자켓과 붉은 브라 톱과 믹스&매치시켜 여성미와 섹시미를 표현한 작품으로 보여 진다. Fig. 14(우)는 궁중 보의 자수문양을 작품의 소재로 디자인 되었으며 노리개를 벨트로 응용하고 샌들은 실패를 응용하여 전통의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낸 작품이다. Fig. 15는 여의주무늬 문보의 문양을 프린트한 소재로 디자인한 작품으로 전통 치마의 형태로 단아함을 표현하였다.

3.2. 색상의 응용

전통색상 중 Fig. 16(좌)은 오방색을 주 색상으로 디자인된 작품으로 흰색의 상의와 검은색 스커트 위에 청, 황, 적색의 색상을 배치하였고 Fig. 16(중, 우)은 오방색을 응용하여 현대적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Fig. 17은 단순한 블랙원피스에 오방색 계열의 색상을 꽃모양의 털실로 이어 붙여 과장된 머플러를 강조한 작품이다.

Fig. 18은 흑색과 적색의 조화로 스커트의 프릴과 상의 네크라인 부분의 오브제가 여성스러움으로 표현된 디자인이다.

3.3. 소재의 응용

전통 복식의 소재로 쓰였던 소재들로 디자인된 작품이며 Fig. 19는 전통문양의 자수 처리된 양단소재로 한국적이면서 차이나풍의 이미지가 포함된 디자인이다. Fig. 20(좌)은 상의의 블레로와 팬츠의 구성으로 전통 단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Fig. 21(우)은 전통한복 치마를 연상케 하며 단 소재를 사용하여 단아하면서 한국 전통미를 느낄 수 있게 표현되었다. 여름에 주로 사용되어온 Fig. 21의 모시 소재를 이용한 디자인은 소재의 특성상 구김이 많이 가고 신축성이 없는 특징을 살려 박스형태의 디자인이 여유로움을 주는 작품이다. Fig. 22는 오간자 소재를 이용하여 오방색중 두색상이 믹스된 드레스로 우아함과 여성미를 나타내었다.

3.4. 기법의 응용

Fig. 23의 누비기법이 응용된 코트로 소매부분에 마름모형태의 문양으로 누비지고 칼라와 몸판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누비진 작품이다. Fig. 24는 크고 작은 원형의 조각천위에 홈질기법을 응용하여 모델의 메이크업과 헤어도 한국적인 정서를 고스란히 표현된 디자인이다. Fig. 25는 홈질기법을 응용하여 조형적인 장식요소로 과장된 스티치의 형태로 변형된 디자인으로 보여 진다. Fig. 26(좌)은 드레이프된 저지원피스 디자인으로 아방가르드한 실루엣을 부각시키고 원피스의 어깨장식과 힙 부분

Fig. 19. 설윤희 03' F/W Seoul Collection

Fig. 20. 이영희 03' F/W Paris Collection

Fig. 21. 김삼순 03' S/S Seoul Collection

Fig. 22. 이영희 03' S/S Seoul Collection

Fig. 23. 이영희 1994-1995 A/W Paris Collection

Fig. 24. 박윤수 00' S/S Seoul Collection

Fig. 25. 이상봉 03/04' S/S Paris Collection

Fig. 26. 이상봉 03/04' F/W Paris Collection

의 장식기법으로는 사뜨기 기법과 매우 흡사하다. Fig. 26(좌)은 퍼 소재 자켓의 상의와 타이트한 블랙 팬츠의 장식이 침선기법 중 사뜨기기법을 응용하여 디자인된 작품이다.

4. 작품제작 방법

작품은 전통의 느낌을 살리기 위하여 수공예의 기법을 사용하였고, 천연염색한 오방색의 색상과 전통공예에 주로 사용했던 소재들로 현대적이면서 한국적인 이미지를 패션일러스트로 표현하였다. 작품의 디자인은 패션 아이템 중에서 원피스, 자켓, 스커트, 블라우스, 팬츠 등의 구성으로 의상의 실루엣을 표현하였다.

소재에 있어서는 천연염색한 명주와 전통공예에 주로 사용하던 숙고사, 도류불수단, 모본단, 화운문단 등을 사용하고 그 외에 재료로는 가죽, 시드비즈, 자계단추, 압축솜 등을 전통소재와 매치시켰다. 장식성의 미적 효과를 위한 수공예기법으로는 흠질, 박음질, 감침질, 세뿔상침, 사뜨기, 쌍밧이단추를 사용하였고 기법의 표현재료로는 명주실을 사용하여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작품에 사용된 색상의 구성은 오방색(적, 청, 황, 백, 흑) 계열의 색상과 전통공예에 주로 사용했던 연두색, 분홍색, 보라색, 자주색으로 한지 위에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통공예의 침선기법을 응용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총 7점을 제작 하였다.

Table 1. 작품 1

재료 :	천연염색 명주, 명주실, 시드비즈, 압축솜, 한지
색상 :	검은색, 베이지색, 노란색, 붉은색
기법 :	흠질, 박음질

작품의 전체적인 특징은 심플한 원피스 형태의 디자인으로 화면을 단순화시킨 두개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였으며, 인체의 부분 부분을 나누어 겹치는 방법으로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스티치로 인체의 선을 강조한 실루엣은 수공예의 장식 적 기법을 표출하기 위해 검은색의 의상에 흰색의 명주실로 박음질의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고, 붉은색의 명주실로는 흠질기법을 이용하여 수공예의 자연스러움을 표현하였다. 배경은 오방색의 색상 중 붉은색의 한지를 사용하여 일러스트의 이미지를 전통의 흐름에 접목시켜 한국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Fig. 27. 완성도(36cm x 45 cm) Fig. 28. 작품 1 세부도

Table 2. 작품 2

재료 :	천연염색 명주, 시드비즈, 명주실, 압축솜, 한지, 자개단추
색상 :	흰색, 파란색, 붉은색
기법 :	홈질, 박음질
작품해설 :	절제된 표현으로 인체의 뒷모습을 단순화 시켜 심플한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의상의 구성으로는 자켓, 스커트와 비즈가 장식된 스카프를 직선적인 실루엣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적인 작품의 이미지는 인체를 축소시키고 공간의 여유로움을 주어 단순화시킨 단순미와 한국적인 여백의 미의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다. 배경은 단순한 표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러스트의 시각적인 효과로 검은색의 한지 위에 표현하였다. 작품에 쓰인 소재로는 천연염색된 명주천을 사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느낌과 작품에 입체감을 주기위해 스커트 위에 자켓, 스카프 순으로 입체적인 조형성을 표현하였다. 부분적인 디테일로는 소매의 단추와 스카프 위에 비즈장식을 더하여 단순함속에서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를 추가시켰고 외곽선은 명주실로 실루엣을 표현하였다.

Fig. 29. 완성도 (35 cm×46 cm)

Fig. 30. 작품 2 세부도

Table 3. 작품 3

재료 :	도류불수단, 화운문단, 명주, 가죽, 실크사, 압축솜, 한지
색상 :	흰색, 파란색, 붉은색, 검은색, 주황색
기법 :	홈질, 박음질, 사뜨기, 시침질
작품해설 :	활동성 있는 현대인의 이미지를 전통으로 함께 함축시킬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를 전통의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접목하여 표현의 풍성함으로 시도하였다. 의상의 구성에 있어서는 테일러드 자켓과 스커트는 동일한 색상의 도류불수단을 사용하였고 기법으로는 박음질 기법을 사용하고 소매는 홈질기법이 쓰였다. 스카프는 시침질로 장식성을 주었고 배경으로는 밝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의 표현을 위해 오방색의 색상 중 노란색을 선택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이미지의 다양한 표현을 위해 쓰여진 소재는 단소재로 표현하였고 홈질과 사뜨기의 기법이 쓰였다. 운문단의 소재를 이용한 애완건을 등장시켜 일러스트레이션의 재미를 구사하였고 회화적인 표현으로도 전달하고자 했다.

Fig. 31. 완성도 (37 cm×48 cm)

Fig. 32. 작품 3 세부도

Table 4. 작품 4

재료 :	숙고사, 명주, 명주실, 진주
색상 :	흰색, 연분홍색, 파란색, 붉은색, 검은색
기법 :	박음질
작품해설 :	작품의 특징은 인체의 상의의 블라우스로만 단순하게 표현된 작품으로 레이스 소재의 비치는 특징을 살려 두 가지 색상의 전통적인 소재인 숙고사로 표현하였으며,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작품이다. 심플한 인체의 구성은 여유로운 이미지를 주고 전통소재인 분홍색 숙고사 위에 검은색 숙고사를 매치시켜 평면위에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표현기법으로는 명주실로 박음질기법을 사용하였고, 여성스러움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공예품의 향상에 쓰였던 진주를 이용하여 단추부분으로 표현하였다.

Fig. 33. 완성도 (33 cm×42 cm)

Fig. 34. 작품 4 세부도

Table 5. 작품 5

재료 :	모본단, 도류불수단, 화운문단, 명주, 명주실, 압축솜, 한지
색상 :	흰색, 연두색, 보라색, 자주색, 붉은색
기법 :	홈질, 박음질, 세땀상침
작품해설 :	울동감 있는 이미지의 표현으로 의상은 원피스와 자켓로 구성되었다. 입체감의 표현을 위해 압축솜 위에 전통문양 소재를 배열하고 수공예적 기법을 응용하여 현대적이면서도 동양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 소재는 광택이 나는 실크소재로 여러가지 전통문양이 새겨진 단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움과 세련된 분위기를 주었으며, 전통적인 느낌을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기법으로는 홈질, 박음질, 세땀상침을 사용하였고 다양한 컬러와 기법의 매치로 화려함과 장식적인 효과를 표현했다.

Fig. 35. 완성도 (35 cm×45 cm)

Fig. 36. 작품 5 세부도

Table 6. 작품 6

재료 :	화운문단, 명주, 명주실, 한지
색상 :	흰색, 분홍색, 주황색, 붉은색, 자주색, 검은색
기법 :	홈질, 박음질, 사뜨기
작품해설 :	전체적인 실루엣을 단순화 시킨 작품으로 전통적인 화운문단의 소재만을 사용하였다. 의상의 구성은 테일러드 자켓과 바지, 벨트, 모자로 구성되어 디자인하였다. 평면적인 자주색 화운문단 위에 의상을 단순화 시켜 컷팅된 각각의 소재들로 입체감을 표현하였고, 테일러드 자켓 형태의 상의 위에 대비되는 색상의 강조된 벨트 장식을 하여 소재의 전통적인 이미지와 의상표현의 현대적인 느낌을 매치시켜 표현하였다. 기법으로는 홈질과, 박음질, 사뜨기가 쓰였으며, 장식의 효과를 위해 소재에 대비되는 색상의 명주실을 사용하였다. 바지의 외곽선에는 두 줄의 박음질로 장식성을 표현 하였다

Fig. 37. 완성
(34 cm×46 cm)

Fig. 38. 작품 6 세부도

Table 7. 작품 7

재료 :	천연염색명주, 가죽, 명주실, 압축솜, 한지, 단추
색상 :	흰색, 노란색, 붉은색, 파란색, 검은색
기법 :	홈질, 박음질, 세뿔상침, 사뜨기, 감침질, 쌍밀이단추
작품해설 :	직선적이고 단순화된 두개의 일러스트에 한국적인 요소 중에서 오방색과 다양한 침선기법의 장식적인 특성을 살려 표현되었으며 수공예의 자연스러움과 한국적인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고조시키고자 하였다. 의상의 구성은 스웨터, 민소매 자켓, 스커트로 구성되었다. 작품의 소재로는 천연염색된 명주천과 가죽을 믹스&매치시켰으며 표현기법으로는 홈질, 박음질 사뜨기, 세뿔상침, 감침질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였다. 스웨터의 앞부분을 사뜨기의 기법으로 디테일을 강조하였고, 조각보의 형태를 응용한 스커트는 오방색의 색상으로 패치워크 시켜 감침질과 홈질기법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대비되는 색상의 명주실을 사용하여 장식미를 표현하였다.

Fig. 39. 완성도
(35 cm×50 cm)

Fig. 40. 작품 7 세부도

의상에 쓰인 소재는 천연염색된 명주천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이미지에 자연 친화적인소재의 자연스러움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5. 결 론

우리 민족정신의 삶의 지혜와 슬기가 담겨있는 한국 전통공예의 침선기법을 현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응용하여 현대인들에게 사라져가는 인간성의 회복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손바느질의 수공예적 기법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양식을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재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조형의 창조적 기능성을 제시하여 한국의 미의식을 패션일러스트에 접목시켜 표현영역을 확대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전통공예품의 침선기법을 응용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단순하고 실용적인 설명도의 개념에 불과했지만 현대에는 작가 중심적 주관과 해석을 통한 패션이미지의 표현을 중요시함으로써 평면적이고 단순한 표현에서 본인의 작품개발을 통해 조형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성을 내포하는 새로운 표현방식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현대복식에서 국내디자이너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전통공예의 장신구인 보자기의 형태나 주머니, 노리개, 실패 등을 공예의 형태나 의상의 액세서리로 활용하였고 전통문양과 소재, 지수 장식과 서로 다른 소재로 매치시켜 변화를 주는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침선기법의 활용에 있어서는 주로 홈질이나 박음질, 누비의 쓰임이 가장 많았고 그 외의 기법의 사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셋째, 본 작품에 표현된 디자인과 소재, 색상, 기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디자인은 패션 아이템 중에서 원피스, 자켓, 스커트, 블라우스, 바지의 구성으로 심플하고 단아한 절제의미를 표현하였다. 소재는 전통의 복식과 공예에 사용되어온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천연염색한 오방색의 명주와 숙고사, 모본단, 운문단, 화운문단, 도류불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적인 이미지를 확대시켰고 색상은 음양오행설에 근거한 오방색과 전통공예에 사용되어온 색상을 주 색상으로 사용하여 한국적인 정서와 전통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었다. 기법의 사용으로는 홈질, 박음질, 감침질, 사뜨기, 상침, 시침, 쌍밀이단추의 기법을 현대 패션일러스트와 매치시켜 장식적이고 조형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현대복식에도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었으며 현대적이면서 전통적인 새로운 영역에 예술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침선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 하므로써 전통공예품의 침선기법을 응용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 현대복식의 한분야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침선기법의 활용도는 현대인들에 있어 현재 유행되고 있는 자연주의

의 웰빙 생활과 느리게 살기의 구호와 함께하며 현대공예와 현대패션 뿐만이 아닌 전통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아 아이템에 가능성을 갖는다. 따라서, 침선기법의 활용이 전통적인 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에 새로운 시도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패션의 표현기능을 지닌 중요한 분야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대중의 호소력을 끝만한 신선하고 혁신적인 감각을 시각화하여 이미지 전달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표현 재료와 다양한 기법의 시도가 끊임없이 요구되고 후속 연구를 통하여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권성재. (1976).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영자. (1992). *한국의 복식미*. 서울: 민음사, p.109.
- 강운숙. (1992). 복식에 나타난 오행색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20(5), 9.
- 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복식2천년*. 서울: 신유.
- 박순천. (1996). *디자이너를 위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서울: 학문사, p. 8.
- 이주현. (1999).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테크닉*. 서울: 학문사, p. 10.
- 이미석. (2002). *조선시대 규방문화와 침선소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이승철. (2001). *자연염색*. 서울: 학고재, p. 19.
- 유희경. (1975).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 533.
- 이경자, 홍나영, 장숙환. (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서울: 열화당, p. 161.
- 조효순. (1988).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서울: 일지사, p. 104.
- 침선장, 중요무형문화제 제89호. (1998).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 허균. (1995). *전통문양*. 서울: 대원사, p. 11.
- Toffler. A. (1991). *미래의 충격*. (장을병 역). 경기: 범우사, p. 230.
- Sloave. E. (1977) *Illustration Fashion*. New york: Haper & Row Inc, p. 3.
- 최복호 대구컬렉션(1998, 2002) 최복호 홈페이지. 자료검색일, 2009, 09. 05, <http://www.choiboko.com>
- 디자이너컬렉션(2003-2005) 어패럴뉴스. 자료검색일, 2009, 09. 05, <http://www.apparelnews.co.kr>
- 패션일러스트레이션(20세기) artophile. 자료검색일, 2009, 11. 15, <http://www.artophile.com>

(2009년 12월 29일 접수/ 2010년 5월 24일 1차 수정/
2010년 5월 24일 게재확정)